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ome Management Ability of Mothers and their unmarried Daughters.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지 금 수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College of Education, Chonbug National University.
Prof: Keum Soo Chi

目 次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tial factors to home management ability of mothers and their unmarried daughters through researching the relationship of their home management ability. It would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subjects were 653, from 20 to 30 years of unmarried women and their mothers in Chonbuk province. The questionaire was used to measure their Home Management ability. The measured areas were planing, creativity, consumption management, housework, evaluation, and human relation. The question items were respectively 6 and totally 36. Spss was used for the statistic.

Frequency, Percentage, Means, Standard Deviation were used for general understanding. For data analysis, F-test,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tepwise Multi-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Lastly, the research pattern was examined by Path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important influential factors to mother's home management ability were their schooling level and their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among the general factors(age, schooling level,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family atmosphere factors (monthly income, family type).

*본 연구는 1989년도 문교부 학술재단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2. The important influential factors of unmarried daughter's home management ability were the monthly income of their family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perceived by them, among their mother's general factors, family atmosphere factors, their own general factors (age, schooling level, perceived socio-economics status, occupation, growing place).
3. The influence of mother's home management ability on unmarried daughter's home management ability was much more remarkable than mother's general factors, family atmosphere factors and unmarried daughter's general factors.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영위하는 원초적인 장소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 생활의 질적향상을 그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은 그 환경속에서 적응하면서 성장발달하게 된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삶의 가치에 있고 보다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를 희구하는 것이라면 이의 일익은 가정관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수한 가정관리능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가정관리는 생활전반에 걸친 경제적, 과학적, 심리적, 신체적,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체계이며 일련의 정신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관리는 전가족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효과적인 가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원의 욕구와 가족자원을 통솔·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음으로서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가정의 기능이 일부 사회로 이양되었고 가정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거나, 가전기구의 보급으로 가사노동이 용이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정일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바람직한 가정관리는 새로운 지식을 부단히 습득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의 확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관리자는 적극적으로 가정관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관리자의 능력은 가정생활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주요인이 된다.

이에따라 주부의 가정관리능력, 행동, 태도등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의 질적향상을 기하기 위해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및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과의 관계를 조사 연구하여 앞으로의 가정과교육의 방향설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관리능력

가정관리란 가정운영의 방침에 따라 가족생활전반에 관해 가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족 및 개인의 욕구가 만족될 수 있도록 목표, 계획, 실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大森和子, 1981)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관리란 가족의 목표달성을 위해 가족자원을 사용하는 과정을 연결시키는 정신적 과정이라고 (Gross and Crandall, 1977)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의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정되며 재검토되고 새로이 재발견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관리를 통해서 행해져야 하는 내용을 Nickell과 Dorsey(장명욱, 1984)는 ① 건전한 가치관을 발전시키는 일, ② 가정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 ③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수립하는 일, ④ 소득의 사용계획을 세우는 일, ⑤ 시간과 노력의 활용계획을 세우는 일, ⑥ 능력과 기술을 개발시키는 일, ⑦ 다양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일, ⑧ 가족성원들의 교육과 사회성의 계

발을 지도하는 일, ⑨ 적절한 주거를 설정하는 일, ⑩ 가족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편의시설을 설정하는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가정관리를 통해서 행해져야 하는 일이란 결국 가정관리행동을 통해서 달성시킬 수 있는데 가정관리행동을 구성하는 영역들로 장명욱(1984)은 계획적 행동, 창의적·과학적 행동, 소비자·구매자로서의 행동, 통솔적·교육적 행동, 인간관계와 관련된 행동, 가사작업자로서의 행동, 평가적 행동 등을 들었으며 이정우(1982)는 가정자원 관리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애정, 성격, 지식과 기능, 체력, 시간, 금전, 의복, 식물, 주거, 가정설비와 공공시설등을 채택한 50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酒井(1969)은 가정관리측정을 위한 변수를 크게 가정관리활동능력과 관리내용으로 구분하여 가정관리활동능력은 계획, 조정, 제어, 지도, 교시, 평가의 6개 변수로 구분하고 관리내용은 인적자원으로 애정, 성격, 지식기능, 체력등의 4항목과 물적자원으로 시간, 금전, 의복, 식물, 주거, 가정설비 및 공공시설등 6항목을 합쳐서 10개 변수로 하여 측정항목수를 60개로 하였다. Nickell과 Dorsey(1976)의 가정관리능력측정표는 관리능력을 계획능력, 계획실시능력, 평가능력의 항목으로 하였고 관리능력의 발달과 관련된 개인적 성질로는 사회적 성질, 신체적 성질, 정신적 성질을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Gross(장명욱, 1989)의 관리능력측정표는 가정생활목표, 의사결정 시간의 계획, 금전의 계획, 장기계획, 계획수행시 점검, 물자계획의 조정, 계획수행후의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분석하여 가정관리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다음 6영역으로 분류하였다. ① 계획적 행동 — 가정관리를 행하는데 있어 이루어져야 할 첫단계로서 가정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입안하는 행동이므로 모든 활동수단을 결정하기 이전에 행해져야 하는 행동이다. ② 창의적 행동 — 가정생활이란 매일 비슷한 생활의 반복인듯 하여 지루하고 단조롭게 여겨지기 쉬우므로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를 실생활에 적용시켜 생활의 윤택함을 주는 행동이다. ③ 소비적 행동 —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신속 정확한 정보를 가지며 경제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합리적인 가정생활을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다. ④ 가사작업 행동 — 가사작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생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⑤ 평가적 행동 — 관리의 전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야 하는 행동으로 관리의 각 단계마다 그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결과를 판단하는 행동이다. ⑥ 인간관계 행동 — 가정생활은 각각의 특성을 가진 가족의 공동생활이므로 많은 인간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가정관리자는 가족간의 애정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행동이다.

국어사전(이희승, 1978)에는 능력이란 일을 감당해 내는 힘이고 행동이란 실제로 어떤 일을 목적하여 자기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위에서 살펴본 가정관리행동 또는 행위의 질적상태를 가정관리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관리행동은 곧 관리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관리능력은 관리행동을 평가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관리능력은 의도적인 경험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고 훈련에 의해 발달할 수 있으므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酒井, 1969).

과거 가족의 욕망이 단순하여 가정관리능력의 제조건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시대에는 가족의 목표달성이 용이하였으므로 가정관리능력의 우열차도 적었을 뿐 아니라 우수한 가정관리능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의 욕망이 문화발전에 비례하여 다양해짐에 따라서 관리행동의 대상이 되는 제조건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가정관리능력의 우열이 문제가 되는데 복잡한 환경하에 있는 현대가정에서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은 가족의 목표달성, 가족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Bailey(1965)는 유능한 관리자는 기준에 관계된 가치와 목표를 깨달으며, 무능한 관리자는 관리과정인 계획, 조직, 조정, 평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가사의 기준이 낮으며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인식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한상순(1978)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족의 행복도와의 관계에서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족의 행복도 사이에는 정적상관이 있다고 하여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우수한 가정관리자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최윤희(1982)는 가정관리능력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이 결혼생활에서의 동료감, 성격적응, 성생활, 자녀관계,

경제, 자아개념, 건강과 여가에 대한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여 가정관리능력이 가정생활의 행복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였다.

가정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결혼생활지속년수, 직업유무, 가족의 월소득, 사회경제적 지위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변인들과 가정관리능력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과 가정관리능력으로 장명욱(1976), 이길표(1984)는 연령이 낮을수록 관리능력이 높다고 하였으며, 황진자(1983)는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교육수준과 가정관리능력으로 이정우(1981)는 학교교육이 인간의 지적능력의 계발과 함께 사고 및 생활방식의 과학화, 합리화, 조직화를 가져오므로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원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장명욱(1976)은 가정관리의 모든 영역에서 교육수준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국졸 주부집단이 가장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Frank(1938)는 가정관리의 실제를 수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회는 성인생활에 좀 더 중요하고 필요한 사상개념가치로 발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학교와 대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酒井(1975)도 학력이 가치관에 정비례한다고 밝혀서 교육이 가정관리능력에 큰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결혼생활지속년수와 가정관리능력으로 이정우(1981)는 결혼생활지속년수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자녀수와 가정관리능력으로 Stouffer(1964)와 Spurrier(1973)는 자녀수가 증가하면 주부의 가정관리성취도가 낮아진다고 하였고 이정우(1981)도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정관리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해도가 낮아 자녀수와 가정관리지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직업유무와 가정관리능력으로 김옥희(1977)는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가정관리능력점수가 높다고 하였으나 이정숙(1983)은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서 가정관리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월소득과 가정관리능력으로 최윤희(1982)는 월소득에 따라 가정관리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리능력이 높다고 하였으나 오정옥(1986)은 월소득과 가정관리능력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2. 어머니와 딸과의 상호관계

가정은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이며 가족은 연령, 세대, 성에 있어 이질적인 사회공동체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어울리며 태도, 습성, 가치의식 등을 습득하여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여러가지 사회화 과정을 밟게 된다(조은숙, 1971). 또한 가족은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가족의 규범, 가치, 역할 및 권위구조등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여 가족구성원간의 대화및 협동, 문제해결 과정 등을 통해 여러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하나의 체계라 할 수 있다.

이 가정안에서 부모란 자녀가 최초로 갖게되는 사회적 경험의 동일화 대상이 되고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모델로 삼아 부모의 기준에 일치하도록 따르며 부모의 행동에 동조하는 등 부모의 행동과 성격을 내면화시키면서 성장하게 된다. 부모중에서도 어머니는 자녀가 출생직후부터 가장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되는 대상으로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와의 동일화 기제가 강하게 된다.(김재은, 1974)

채정애(1983)는 부모의 지도여하에 따라 자녀들의 생활방식이 결정되며 이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주로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지내게 되므로 그들의 생활방식은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크게 좌우된다고 하여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김부연(1986)은 어머니의 역할과 행동및 태도에서 전수되는 가르침은 자녀의 행동과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성인이 된 후 올바른 사회인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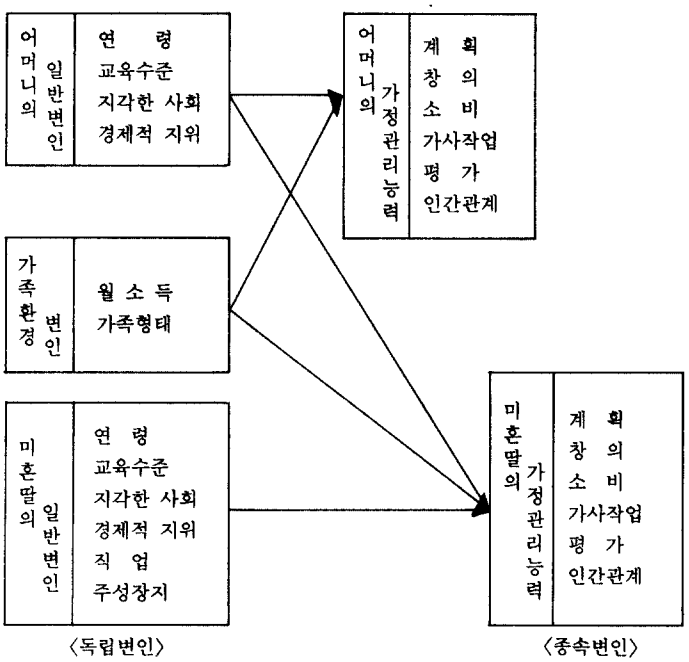
가정관리행동이나 태도, 능력면에서는 아직 딸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딸에 대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다방면의 연구를 통해 드러나 있다.

조은숙(1971)은 모자관계의 심리학 분석에서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가정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지도를 받는데 처음에 자녀가 받는 지도는 소위 기본적인 습관이며 자녀는 부모를 모형으로 하여 많은 것을 학습해 가고, 또한 부모에게서 어떤 행동은 칭찬받고, 어떤 행동은 책망을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학습의 바탕을 이루는 가치를 배우며 습득하고 드디어는 이들 가치를 자기 내부에서 정리해 가면서 습관을 재편성해 간다고 하였다. 즉 부모는 자신의 가치의식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통해 자녀들에게 이들 가치를 넣어주는 것이라 하여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의 가치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언급하였다. 또한 김부연(1986)은 자녀가 올바른 물자절약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합리적이고 독립심을 격려하는 교육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여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유영주(1985)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환경적 요인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보아 특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딸도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며(Schulenberg et al, 1984) 취업모는 성역할 태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모델 즉 딸의 생생한 본보기가 되고(Altman and Grossman, 1977., Lemkem, 1983) 딸은 취업모를 통해서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Vogel, 1970, 1975) 취업모의 일에 대한 태도와 기대, 그리고 직업과 가정생활을 양립시키는 능력은 딸의 미래생활에서 가정과 직업을 양립시키는 태도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Elder, 1980).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학교육을 받은 취업모는 딸의 비전통적인 직업선택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Donnel and Anderson, 1978)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Zuckerman, 198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 특히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여러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이 딸의 가정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리라 보고, 이를 조사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그 연구모형을 도식하면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어머니의 일반변인(연령, 교육수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과 가족환경변인(월소득, 가족형태)은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어머니의 일반변인과 가정환경변인및 미혼딸의 일반변인(연령, 교육수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주성장지)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측정도구

① 가정관리능력 — 장명욱(1976)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이정우(1982), 酒井ノブ子(1969)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알맞도록 수정보완하였다. 하위변인으로 계획능력, 창의능력, 소비능력, 가사작업능력, 평가능력, 인간관계능력의 6개 영역에 각 6문항씩 36문항이며 5단계 likert 형식을 적용하였고 신뢰도는 .79(Cronbach's a)였다.

② 연구대상자의 일반변인 — 어머니의 일반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선정하였고, 가족환경변인으로 월소득, 가족형태를 선정하였으며, 미혼딸의 일반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주성장지를 선정하여 변인은 총 10개 항목이었다.

3. 연구대상및 자료수집

① 연구대상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20세이상에서 30세이하의 미혼여성과 그들의 어머니였다. 미혼여성의 학력은 중졸, 고졸, 전문대재, 전문대졸, 대재, 대졸등으로 구분하고, 직업을 단순기능직, 판매서비스직, 행정사무직, 전문직으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② 자료의 수집 — 예비조사는 1989년 6월 20일에서 30일에 실시하였고 본조사는 1989년 9월 23일에서 10월 15일까지 8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709부가 회수되었고 653부를 최종 통계처리하였다.

4. 자료처리및 분석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률,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F-test,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DMR 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은 경로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표 1〉과 같다.

2.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은 180점 만점중 평균 124.36이었고 영역별로 볼 때 인간관계능력이 30점(100%) 만점중 22.84(76.13%)로 가장 높은 득점을 보였으며, 다음이 소비능력으로 21.53(71.77%)이었고, 가장 낮은 득점을 보인 영역은 계획능력으로 16.97(56.57%)였다.〈표2〉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은 평균 123.24(68.46%)로 어머니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득점을 보인 영역은 창의능력으로 21.83(72.76%)였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계획능력으로 16.38(54.60%)였고 이외에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계획능력은 어머니와 미혼딸 모두 매우 낮은 득점을 보였는데 이는 1982년의 선행연구(이정우1981)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N = 653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률
어머니	연 령	40대	286	43.8
		50대	307	47.0
		60대	60	9.2
	교육수준	무학	25	3.8
		국졸	226	34.6
		중졸	195	29.9
		고졸	174	26.6
		전문대졸	15	2.3
		대졸	18	2.8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	7	1.1
		중상	83	12.7
		중	433	66.3
		중하	117	17.9
		하	13	2.0
미혼딸	연 령	20-23세	389	59.6
		24-27세	221	33.8
		28-30세	43	6.6
	교육수준	중졸	8	1.2
		고졸	247	37.8
		전문대재	71	10.9
		전문대졸	71	10.9
		대재	100	15.3
		대졸	156	23.9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	3	0.5
		중상	91	13.9
		중	422	64.6
		중하	118	18.1
		하	19	2.9
	직 업	없음	218	33.4
		전문직	147	22.5
		행정사무직	167	25.6
		판매서비스직	22	3.4
		기능및단순노동자	99	15.2
	주성장지	특별시	15	2.3
		시	415	65.1
		군	213	32.6
가족환경	가족의 월소득	50만원미만	208	31.8
		50-100만원	344	52.7
		100만원이상	101	15.5
	가족형태	확대가족	117	17.9
		핵가족	536	82.1

〈표 2〉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 영역별 점수

영역	평균		백분률		표준편차	
	어머니	미혼딸	어머니	미혼딸	어머니	미혼딸
계획능력	16.97	16.38	56.57	54.60	3.18	3.00
창의능력	20.81	21.83	69.37	72.76	3.44	3.11
소비능력	21.53	21.79	71.77	72.63	3.16	2.84
가사작업능력	20.74	20.55	69.13	68.50	3.31	3.03
평가능력	21.44	21.73	71.47	72.43	3.58	3.39
인간관계능력	22.84	20.94	76.13	69.80	3.24	3.21
전체가정관리능력	124.36	123.24	69.09	68.46	13.38	12.05

3. 연구대상자의 일반변인이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선정된 변인이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1) 어머니의 일반변인과 가족환경변인이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① 분산분석의 결과

〈표3〉에 의하면 어머니의 연령은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중 창의, 가사작업, 평가능력에서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40대 어머니의 창의, 가사작업, 평

〈표 3〉 독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관리 능력

변인			계획	창의	소비	가사작업	평가	인간관계	전체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어머니	연령	40대	17.09	21.22	21.49	21.12	21.84 B	22.80	125.57
		50대	17.00	20.55	21.52	20.50	21.24 A	22.79	123.61
		60대	16.31	20.22	21.81	20.24	20.58 A	23.27	122.40
		F	1.50	3.82*	.26	3.35*	4.03*	.56	2.28
	교육수준	무학	16.82	19.68 A	20.60 A	20.48	19.52 A	22.76	119.32 A
		국졸	16.38	19.99 A	20.86 A	20.79	20.85 AB	22.67	121.55 A
		중졸	16.96	20.63 A	21.52 AB	20.61	21.66 BC	22.71	124.09 A
		고졸	17.67	21.98 B	22.44 B	20.93	22.05 BC	23.06	128.13 B
		전문대졸	17.93	21.67 AB	21.13 AB	19.87	22.20 BC	23.27	126.07 AB
		대졸	18.11	22.67 B	22.89 B	20.89	22.83 C	24.00	131.39 B
		F	4.28***	8.93***	6.33***	.42	4.60***	.87	6.83***
	사회경제적지각한지위	상	18.57 B	22.43 B	21.14 AB	20.14	24.28 C	22.86	130.43 B
		중상	17.38 B	21.58 B	22.05 B	21.13	22.38 BC	23.34	127.96 B
		중	17.12 B	20.92 B	21.68 B	20.69	21.58 BC	22.99	124.99 B
		중하	16.26 AB	20.04 AB	20.85 A	20.60	20.23 A	22.05	120.04 AB
		하	15.15 A	18.46 A	19.69 A	20.69	20.23 AB	21.23	115.46 A
		F	3.57**	4.60**	3.34*	.57	6.63***	3.48**	6.24***

변인		가정관리능력	계 획	창 의	소 비	가사 작업	평가	인간 관계	전 체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가족환경	월소득	50만원미만	16.41 A	20.39 A	21.18 A	20.50	20.68 A	22.60	121.78 A
		50-100만원	17.02 B	20.80 A	21.56 AB	20.84	21.66 B	22.83	124.71 B
		100만원이상	17.96 C	21.71 B	22.17 B	20.91	22.29 B	23.36	128.41 C
		F	8.22***	5.06**	3.38*	.81	8.33***	1.88	8.84***
미혼딸	연령	20-23세	16.77	20.86	21.29	20.69	21.16	22.75	123.55
		24-27세	17.22	20.70	21.81	20.85	21.82	22.79	125.22
		28-30세	17.58	20.90	22.25	20.58	21.97	23.81	127.11
		F	2.24	.18	3.13*	.26	2.90	2.09	2.09
	교육수준	중졸	18.00	23.50 B	22.25	22.87	24.75	22.37	133.75 B
		고졸	16.84	20.72 A	21.17	20.61	21.39	22.75	123.61 AB
		전문대재	16.21	20.88 AB	20.50	20.83	21.02	22.78	122.25 A
		전문대졸	17.18	21.21 AB	21.94	20.76	21.39	22.97	125.46 AB
		대재	17.04	20.80 A	21.74	21.11	20.95	22.82	124.46 AB
		대졸	17.34	20.60 A	22.04	20.55	21.89	22.98	125.42 AB
		F	1.56	1.32	3.08**	1.09	2.45*	.15	1.60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	18.00	24.66	23.66	18.33	23.66	22.33	130.66
		중상	17.58	21.49	22.02	21.05	22.20	23.04	127.40
		중	17.09	20.97	21.64	20.72	21.65	22.96	125.06
		중하	16.25	19.76	20.88	20.46	20.10	22.27	119.73
		하	15.84	19.84	20.31	21.84	21.15	22.63	121.63
		F	3.20*	5.34***	3.02*	1.33	6.03***	1.21	5.52***
	직업	없음	16.86	21.01	21.29 AB	21.04	21.10	22.85	124.19
		전문직	17.26	20.39	21.99 B	20.36	21.80	23.00	124.82
		행정사무직	16.87	20.87	21.74 AB	20.74	21.43	23.00	124.67
		판매서비스직	17.09	21.22	21.18 AB	20.45	22.95	23.54	126.45
		기능및 단순노동	16.93	20.78	21.09 A	20.70	21.34	22.13	123.00
		F	.42	.83	1.82	.99	1.86	1.65	.47
	주성장지	특별시	17.40	19.53	21.80	18.86	20.93	23.73	122.26
		시	17.15	20.99	21.67	20.62	21.48	22.59	124.52
		군	16.58	20.53	21.23	21.11	21.40	23.27	124.15
		F	2.42	2.35	1.46	4.07	.19	3.80*	.24

* P<.05 ** P<.01 *** P<.001

가능력이 높았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중 계획, 창의, 소비, 평가 그리고 전체가정관리능력에서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대졸 어머니의 계획, 창의, 소비, 평가, 전체가정관리능력이 높았다.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중 가사작업에서만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계획, 창의, 소비, 평가, 인간관계 그리고 전체가정관리능력에서 집단간 유의차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上인 경우 계획, 창의, 평가 그리고 전체가정관리능력이 높았고, 中上인 경우 소비, 인간관계능력이 높았다.

가족의 월소득은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중 계획, 창의, 소비, 평가 그리고 전체 가정관리능력에서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월소득 100만원이상일 때 가정관리전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가정관리 전영역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 중다회귀분석 결과

〈표4〉에 의하면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은 어머니의 교육수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가족의 월소득, 가족형태등으로 8.1%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어머니의 교육수준(β=.133),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β=.083) 순이었다.

〈표 4〉 어머니의 일반변인과 가족환경변인이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에 따른 영향

변인		R^2	F값	β
가정관리능력	일반변인과 가족환경변인			
가정관리	교육수준	.045	20.549*	.133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72	16.875*	.083
	연 령	.076	11.821*	-.078
	월소득	.079	9.165*	.070
	가족 형태	.081	7.530*	-.051
계 획	교육수준	.029	12.786*	.194
	월소득	.044	6.574*	-.111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38	8.585*	.087
	가족형태	.048	5.449*	-.079
	연 령	.051	4.597*	.024
창 의	교육수준	.049	22.313*	.173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62	14.295*	-.086
	가족형태	.069	10.615*	.058
	연 령	.075	8.706*	-.029
	월소득	.075	6.998*	.005
소 비	교육수준	.039	17.394*	-.153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46	10.465*	.137
	연 령	.049	7.474*	-.117
	가족형태	.050	5.694*	.063
	월소득	.050	4.547*	.050
평 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39	17.746*	-.130
	교육수준	.060	13.883*	.036
	연 령	.074	11.397*	.028
	월소득	.077	8.924*	.028
	가족형태	.079	7.367*	.026
인간관계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23	10.001*	.164
	교육수준	.024	5.314*	-.157
	월소득	.025	2.812*	-.062
	가족형태	.025	3.651*	.056
	연 령	.026	2.303*	.046

* P<.001

영역별로 볼 때, 계획능력은 어머니의 일반변인과 가족환경변인에 의해 5.1%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어머니의 교육수준(β=.194), 가족의 월소득(β=-.111) 순이었다.

창의능력은 어머니의 일반변인과 가족환경변인에 의해 7.5%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어머니의 교육수준(β=-.173),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β=-.0886) 순이었다.

소비능력은 어머니의 일반변인과 가족환경변인에 의해 5.0%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어머니의 교육수준(β=-.153),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β=.137) 순이었다.

평가능력은 어머니의 일반변인과 가족환경변인에 의해 7.9%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β=-.130), 교육수준(β=.036) 순이었다.

인간관계능력은 어머니의 일반변인과 가족환경변인에 의해, 2.6%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β=.164), 교육수준(β=-.157) 순이었다.

이상의 분산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의 월소득은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정도가 가정관리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신유순(1986), 고정명(1976), 이병례(1988)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은 어머니의 가정관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박예아(1988)의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의 주부가 소비자 역할수행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였고, 가족형태는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2) 어머니의 일반변인, 가족환경변인, 미혼딸의 일반변인이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① 분산분석 결과

〈표5〉에 의하면 어머니의 연령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서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중 창의능력만이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고졸 어머니의 미혼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중 창의, 평가, 인간관계 그리고 전체 가정관리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中上인 어머니의 미혼딸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월소득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중 계획, 창의, 평가, 인간관계, 그리고 전체 가정관리능력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경우와 같이 월소득 100만원 이상이 모든 가정관리영역에서 높았다.

〈표 5〉 독립변인에 따른 미혼딸의 가정관리 능력

변인		가정관리능력 변인	계 획	창 의	소 비	가사작업	평 가	인간관계	전 체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어머니	연령	40대	16.26	21.84	21.63	20.74 B	21.66	20.95	123.09
		50대	16.57	21.89	21.96	20.53 AB	21.74	20.01	123.73
		60대	15.91	21.51	21.68	19.78 A	22.05	20.52	121.46
		F	1.70	.38	1.05	2.51	.32	.57	.92
	교육수준	무 학	16.56	21.80 AB	22.32	21.04	21.44	20.88	124.04 AB
		국 졸	15.98	21.29 A	21.88	20.38	21.49	20.78	121.81 A
		중 졸	16.40	21.82 AB	21.47	20.47	21.85	20.87	122.88 AB
		고 졸	16.76	22.48 B	22.07	20.88	22.06	21.15	125.41 B
		전문대졸	17.53	22.47 AB	21.13	19.80	21.60	21.07	123.60 AB
		대 졸	16.61	22.11 AB	21.18	20.28	21.05	21.50	122.83 AB
		F	1.88	3.03*	1.35	.93	.78	.39	1.84

변인			계획	창의	소비	가사작업	평가	인간관계	전체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평균DUNCAN
	지각한 사회경제적지위	상	16.85	20.57 AB	21.00	18.71 AB	21.85 AB	21.14 AB	120.14 AB
		중상	16.91	22.36 B	21.67	20.75	22.81 B	21.67 B	126.18 B
		중	16.38	21.94	21.88	20.54	21.76 A	21.00 AB	123.52 B
		중하	16.06	21.29	21.72	20.75	21.10 A	20.40 A	121.32 AB
		하	15.92	20.38	20.69	18.69	19.69 A	19.00 A	114.38 A
		F	1.11	2.65*	.78	2.09	4.35**	3.17*	3.97**
가족환경	월소득	50만원미만	15.89 A	21.28 A	21.66	20.39	21.28 A	20.51 A	121.03 A
		50-100만원	16.45 B	21.87 B	21.75	20.56	21.79 AB	20.93 A	123.36 B
		100만원이상	17.19 C	22.85 C	22.21	20.83	22.44 B	21.85 B	127.38 C
		F	6.69**	8.88***	1.34	.69	4.15*	5.97**	9.73***
	연령	20-23세	16.12 A	21.62	21.62	20.56	21.50	20.89	122.34
		24-27세	16.66 B	22.12	21.95	20.61	21.98	20.92	124.25
		28-30세	17.41 B	22.25	22.46	20.06	22.51	21.46	126.18
		F	5.06**	2.21	2.18	.60	2.58	.62	3.17
미혼딸	교육수준	중졸	17.37	21.75 AB	22.25	20.37 AB	20.62	20.37	122.75 AB
		고졸	16.21	21.36 A	21.82	20.14 A	21.72	21.12	122.39 A
		전문대재	15.81	23.38 B	20.87	20.63 B	22.01	20.71	122.43 AB
		전문대졸	16.50	22.28 B	21.85	19.76 A	21.80	20.90	123.11 AB
		대재	15.82	21.67 AB	21.70	21.51 AB	21.39	20.88	122.97 AB
		대졸	17.19	22.24 B	22.16	20.91 B	21.87	20.82	125.21 B
		F	3.93**	2.48*	2.11	4.44***	.53	.33	1.16
	지각한 사회경제적지위	상	17.33	22.00	21.33	19.33	21.33	21.00	122.33
		중상	16.94	22.71	21.95	20.50	22.81	21.32	126.26
		중	16.44	21.92	21.83	20.56	21.56	21.13	123.48
		중하	15.95	21.09	21.79	20.66	21.70	20.20	121.42
		하	14.94	20.15	20.21	19.84	20.52	19.21	114.89
		F	2.63*	5.09***	1.59	.43	3.20*	3.72**	4.52***
	직업	없음	16.13 B	22.09 B	21.48	20.05	21.78 A	20.90	123.45 AB
		전문직	17.02 C	22.08 AB	22.07	20.68	21.60 AB	20.82	124.29 B
		행정사무직	16.31 B	21.70 AB	21.76	20.04	21.77 AB	20.95	122.53 AB
		판매서비스직	14.81 A	21.36 AB	21.18	19.22	21.63 B	19.90	118.13 A
		기능및단순노동	16.49 BC	21.23 A	22.24	20.40	21.76 AB	21.40	123.54 AB
		F	3.65**	1.75	1.88	3.90***	.08	1.14	1.45
	주성장지	특별시	16.20	20.40	22.20	19.60	19.66 A	20.40	118.46
		시	16.54	22.06	21.79	20.60	21.67 B	20.83	123.52
		군	16.09	21.47	21.75	20.51	22.00 B	21.18	123.02
		F	1.63	4.26*	.17	.82	3.55*	1.04	1.33

* P<.05 ** P<.01 *** P<.001

가족형태는 미혼딸의 가정관리 전영역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혼딸의 연령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중 계획능력과 전체 가정관리능력에서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28~30세인 미혼딸이 가장 높았다.

미혼딸의 교육수준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중 계획, 창의, 가사작업능력에서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대졸 미혼딸이 계획, 가사작업능력에서, 전문대졸 미혼딸은 창의능력에서 가장 높았다.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중 계획, 창의, 평가, 인간관계 그리고 전체 가정관리능력에서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났다.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上인 경우 계획능력이 가장 높았고, 中上인 경우 창의, 평가, 인간관계 그리고 전체 가정관리능력이 높았다.

미혼딸의 직업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중 계획, 가사작업능력에서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전문직의 미혼딸이 가장 높았다.

미혼딸의 주성장지는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중 창의, 평가능력에서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市인 미혼딸은 창의능력이, 郡인 미혼딸은 평가능력이 가장 높았다.

② 중다회귀분석 결과

〈표6〉에 의하면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은 어머니의 일반변인, 가족환경변인, 미혼딸의 일반변인등으로 7.0%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가족의 월소득(β=.149),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β=.125) 순이었다.

영역별로 볼 때, 계획능력은 어머니의 일반변인, 가족환경변인, 미혼딸의 일반변인등으로 3.8% 설명

〈표 6〉 일반변인이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변 인		R^2	F값	β
종속변인	독 립 변 인			
가정관리능력	가족의 월소득	.036	16.082 **	.149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55	12.463 **	.125
	미혼딸의 직업	.065	5.942 **	.103
	미혼딸의 교육수준	.067	5.132 **	.077
	미혼딸의 연령	.061	7.001 **	.071
	가족형태	.059	8.955 **	.062
	어머니의 연령	.069	4.494 **	.043
	미혼딸의 주성장지	.069	3.966 **	.026
	어머니가 자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70	3.528 **	.019
계획능력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25	5.447 **	-.086
	가족의 월소득	.016	7.107 **	.067
	미혼딸의 연령	.033	3.697 **	.061
	미혼딸의 주성장지	.030	4.447 **	-.053
	어머니의 연령	.036	3.166 **	-.049
	어머니의 교육수준	.037	2.760 *	.041
	미혼딸의 교육수준	.038	2.392 *	.036
	가족형태	.038	2.097 *	.013
창의능력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44	9.983 **	-.132
	가족의 월소득	.032	14.157 **	.129
	가족 형태	.050	7.157 **	.073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57	4.334 **	.051
	미혼딸의 교육수준	.054	6.146 **	.045
	미혼딸의 주성장지	.037	5.089 **	.056
	미혼딸의 연령	.059	2.955 **	.030
	어머니의 연령	.058	3.297 **	-.027
	어머니의 교육수준	.058	3.746 **	.026
	미혼딸의 직업	.059	2.654 **	.008

변 인		R^2	F값	α
종속변인	독 립 변 인			
가사작업능력	미혼딸의 교육수준	.016	6.977 **	.206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22	4.789 **	-.101
	미혼딸의 직업	.030	3.276 *	.079
	어머니의 연령	.026	3.869 **	-.067
	미혼딸의 주성장지	.032	2.850 *	.050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33	2.457 *	.046
	가족의 월소득	.034	2.169 *	.041
	어머니의 교육수준	.035	1.447 *	.033
평가능력	가족의 월소득	.031	6.838 **	.120
	미혼딸의 연령	.036	5.301 **	.116
	미혼딸의 직업	.043	4.847 **	.104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53	3.966 **	-.088
	미혼딸의 주성장지	.048	4.344 **	.084
	가족형태	.057	3.681 **	.064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21	9.493 **	-.048
	어머니의 교육수준	.057	3.221 **	-.014
	미혼딸의 교육수준	.057	2.654 **	.013
	어머니의 연령	.057	2.951 **	-.009
인간관계능력	가족의 월소득	.024	10.560 **	.162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36	8.113 **	-.112
	미혼딸의 직업	.048	7.248 **	.082
	미혼딸의 주성장지	.054	6.139 **	.077
	가족형태	.057	5.138 **	.055
	미혼딸의 교육수준	.058	3.771 **	-.055
	어머니의 교육수준	.057	4.335 **	.034
	어머니의 연령	.059	3.321 **	.029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059	2.572 **	-.013
	미혼딸의 연령	.059	2.880 **	-.012

* P<.05 ** P<.01

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β=-.086), 가족의 월소득(β=.067) 순이었다.

창의능력은 어머니의 일반변인, 가족환경변인, 미혼딸의 일반변인등으로 5.9%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β=-.132), 가족의 월소득(β=129)순이었다.

가사작업능력은 어머니의 일반변인과 가족환경변인, 미혼딸의 일반변인등으로 3.5%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미혼딸의 교육수준(β=.206),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β=-.101) 순이었다.

평가능력은 어머니의 일반변인, 가족환경변인, 미혼딸의 일반변인등으로 5.7%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가족의 월소득(β=.120), 미혼딸의 연령(β=.116) 순이었다.

인간관계능력은 어머니의 일반변인, 가족환경변인, 미혼딸의 일반변인등으로 5.9%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가족의 월소득(β=.162),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β=-.112) 순이었다.

이상의 분산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의 월소득, 미혼딸의 연령,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황덕순(1978)의 청소년의 금전관리는 그가 속한 생활수준이나 거주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미혼딸의 교

육수준, 미혼딸의 직업, 미혼딸의 주성장지는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형태는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4.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이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은 〈표7〉과 같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전체 가정관리능력간의 상관관계는 r=.4377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고 같은 영역간의 상관관계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

〈표8〉에 의하면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은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 인간관계, 평가, 소비능력등으로 17.4%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영역은 전체 가정관리(β=.381)이었다.

영역별로 볼 때, 계획능력은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 계획, 인간관계, 평가, 가사작업, 소비능력등으로 11.2%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영역은

〈표 7〉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 상관관계

	계획	창의	소비	가사작업	평가	인간관계	전체
계획	.3018**	.1527**	.1631**	.1375**	.1684**	.1723**	.2709**
창의	.1571**	.3325**	.2254**	.1520**	.2050**	.1625**	.3098
소비	.1475**	.1610**	.3439**	.1538**	.1956**	.1616**	.2879**
가사작업	.0665**	.1195**	.1424**	.3548**	.1386**	.1407**	.2397**
평가	.1385**	.1914**	.1133*	.1520**	.3702**	.2461**	.3058**
인간관계	.1502**	.1747**	.1114*	.1258*	.2642**	.3071**	.2837**
전체	.2467**	.2923**	.2776**	.2755**	.3508**	.3111**	.4377**

*P<.01 **P<.001

〈표 8〉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이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정관리능력		R^2	F값	β
미혼딸	어머니			
가정관리	가정관리	.072	90.114*	.381
	인간관계	.173	45.250*	.038
	평가	.174	30.158*	.022
	소비	.174	22.579*	-.013
계획	계획	.108	52.662*	.317
	인간관계	.112	27.185*	.064
	가정관리	.112	9.019*	-.029
	평가	.112	13.577*	.024
	가사작업	.112	10.844*	.016
	소비	.112	18.110*	-.009
창의	창의	.105	50.836*	.255
	소비	.117	28.623*	.104
	인간관계	.120	19.606*	.061
	가사작업	.122	14.923*	.050
	평가	.123	11.999*	-.040
	계획	.123	10.003*	.020

가정관리능력		R^2	F값	β
미혼딸	어머니			
소비	소비	.107	52.071*	.304
	가사작업	.112	27.113*	.057
	계획	.113	18.215*	.035
	창의	.113	13.664*	-.024
	평가	.113	10.927*	.017
가사작업	가사작업	.018	36.809*	.234
	계획	.087	13.774*	-.121
	가정관리	.091	10.714*	.119
	소비	.083	19.578*	.044
평가	평가	.130	64.624*	.327
	인간관계	.134	33.410*	.081
	소비	.137	22.814*	.078
	창의	.138	17.275*	.044
	계획	.139	13.800*	.013
	가사작업	.139	11.480*	.009
인간관계	인간관계	.100	48.093*	.258
	평가	.111	27.049*	.110
	계획	.117	19.073*	.100
	창의	.121	11.822*	.062
	소비	.119	14.550*	.059
	가정관리	.121	9.834*	.034

* P<.001

계획능력(β=.317)이었다.

창의능력은 어머니의 창의, 소비, 인간관계, 가사작업, 평가, 계획능력등으로 12.3%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영역은 창의능력(β=.255)이었다.

소비능력은 어머니의 소비, 가사작업, 계획, 창의, 평가능력등으로 11.3%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영역은 소비능력(β=.304)이었다.

가사작업능력은 어머니의 가사작업, 계획, 가정관리, 소비능력등으로 8.3%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영역은 가사작업능력(β=.234)이었다.

평가능력은 어머니의 평가, 인간관계, 소비, 창의, 계획, 가사작업능력등으로 13.9%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영역은 평가능력(β=.327)이었다.

인간관계능력은 어머니의 인간관계, 가정관리능력, 평가, 계획, 창의, 소비능력등으로 12.1%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영역은 인간관계능력(β=.258)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상관관계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므로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이 우수할수록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도 우수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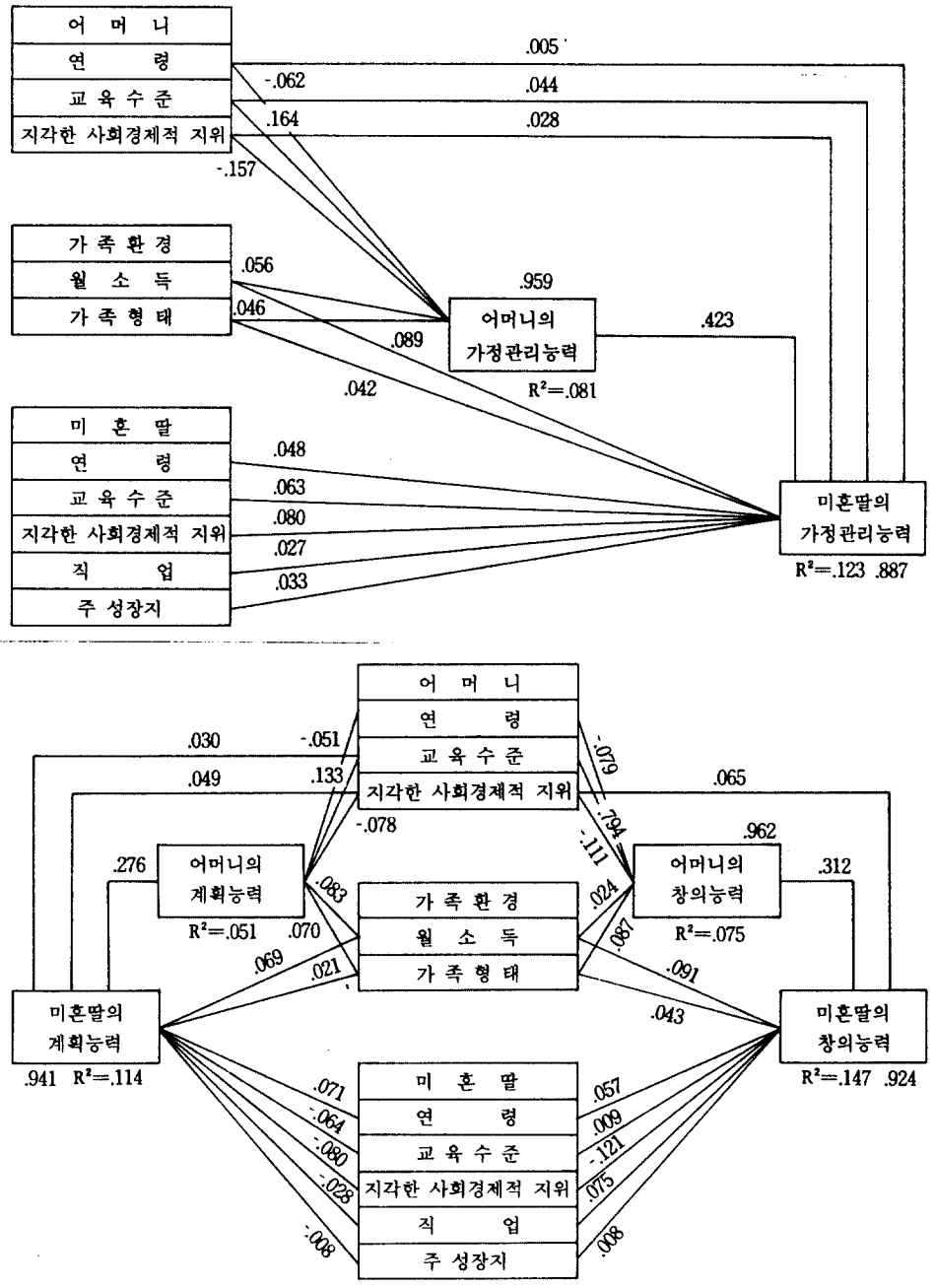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3은 긍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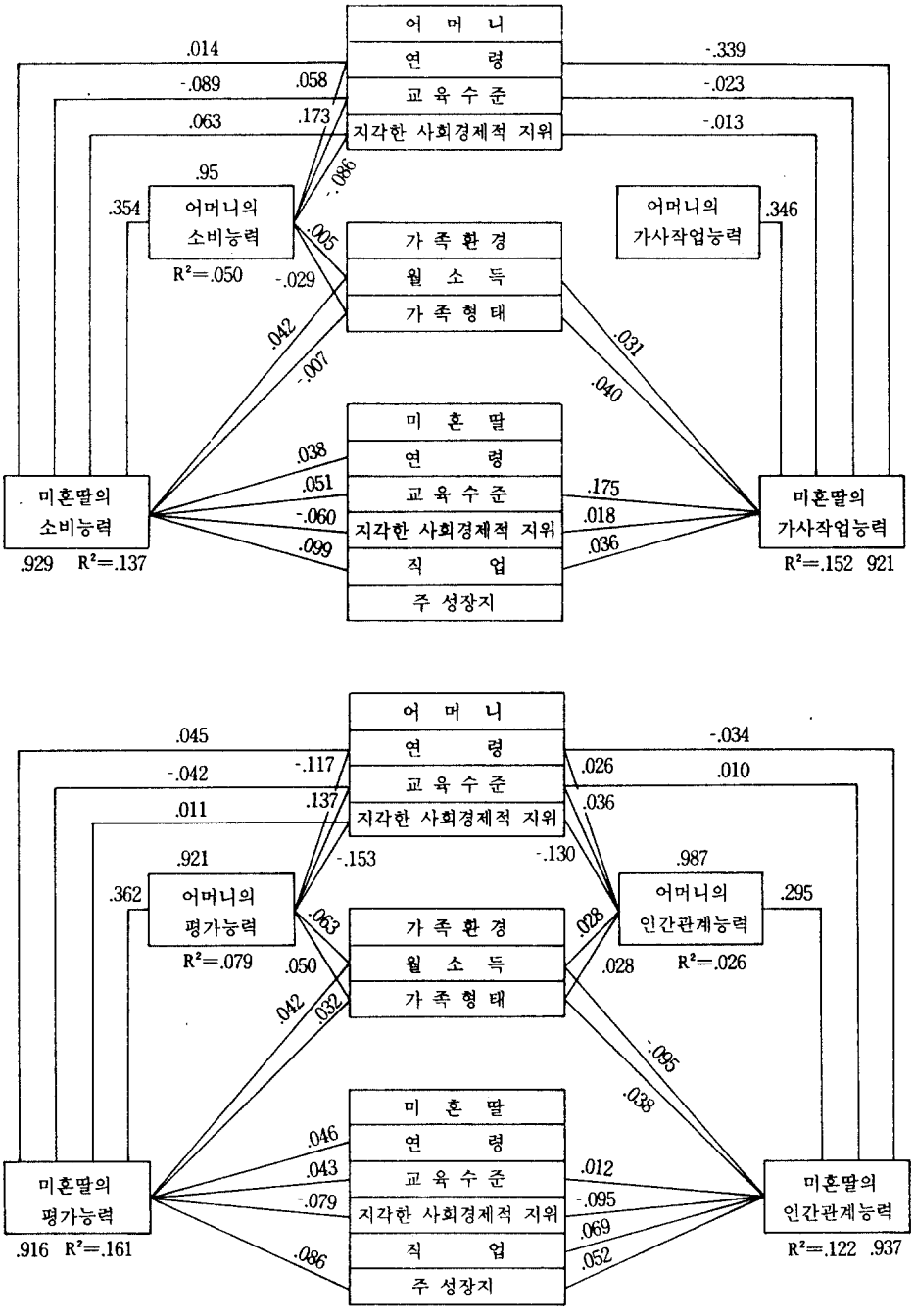
6.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과 어머니의 일반변인, 가족환경변인, 미혼딸의 일반변인이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과 일반변인이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표4〉 〈표6〉 〈표8〉을 종합하여 〈그림2〉와 같은 경로분석모형을 나타내었다.

〈그림2〉에 의하면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은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에 의해 β=.423, 계획능력은 어머니의 계획능력에 의해 β=.276, 창의능력은 어머

니의 창의능력에 의해 β=.312, 소비능력은 어머니의 소비능력에 의해 β=.354, 가사작업능력은 어머니의 가사작업능력에 의해 β=.346, 평가능력은 어머니의 평가능력에 의해 β=.362, 인간관계능력은 어머니의 인간관계능력에 의해 β=.295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다른 일반변인들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본 연구의 경로분석 결과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영향을 분해시켜 본 결과는 〈표9〉과 같다.

〈표 9〉 미혼딸의 가정관리 능력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

외생변수 / 내생변수a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의 월소득		
	직접영향	간접영향	총 영향	직접영향	간접영향	총 영향	직접영향	간접영향	총 영향	직접영향	간접영향	총 영향
가정관리능력	.005	-.361	-.356	-.044	.069	.113	.028	-.066	-.038	.089	.024	.113
계 획 능 력		-.014	-.014	.030	.037	.067	.049	-.022	.027	.069	.023	.092
창 의 능 력		.025	.025		.061	.061	.065	.035	.100	.091	.007	.098
소 비 능 력	.014	.021	.035	-.089	.061	-.028	.063	.030	.093	.042	.002	.044
가사작업능력	-.039		-.039	-.023		-.023	-.013		-.013	.031		.031
평 가 능 력	.045	.042	.087	-.042	.050	.008	.011	.055	.066	.042	.023	.065
인간관계능력	-.034	.008	-.026	.010	.011	.021		.038	.038	-.095	.008	-.087

/	가족형태			미혼딸의 연령			미혼딸의 교육수준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직접영향	간접영향	총 영향	직접영향	간접영향	총 영향	직접영향	간접영향	총 영향	직접영향	간접영향	총 영향
	.042	.019	.061	.048		.048	.063		.063	.080		.080
	.021	.019	.040	.071		.071	-.064		-.064	-.080		-.080
	.043	.027	.070	.057		.057	.009		.009	-.060		-.060
	-.007	.010	.003	.038		.038	.051		.051	-.060		-.060
	.040		.040				.175		.175	.018		.018
	.032	.018	.050	.046		.046	.043		.043	-.079		-.079
	.038	.008	.046				.012		.012	-.095		-.095

/	미혼딸의 직업			미혼딸의 주성장지			어머니의 a해당 관리능력*		
	직접영향	간접영향	총 영향	직접영향	간접영향	총 영향	직접영향	간접영향	총 영향
	.027		.027	.033		.033	.423		.423
	-.028		-.028	-.008		-.008	.276		.276
	-.075		-.075	.008		.008	.312		.312
	.099		.099				.354		.354
	.036		.036	.086		.086	.346		.346
				.052		.052	.362		.362
	.069		.069				.295		.295

a : 내생변수

* : 예를들어 내생변수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이면 외생변수는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임.

V.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와 미래주부인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어머니의 일반변인과 가족환경변인이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일반변인, 가족환경변인, 그리고 미혼딸의 일반변인이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변인을 어머니의 일반변인(연령, 교육수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환경변인(가족의 월소득, 가족형태), 미혼딸의 일반변인(연령, 교육수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주성장지)등을 선정하고 종속변인을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으로 하였고, 측정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일반변인과 가족환경변인 중에서 가정관리능력, 계획, 창의, 소비능력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었고 평가, 인간관계능력에는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사작업능력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었다.

2.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일반변인, 가족환경변인 그리고 미혼딸의 일반변인 중에서 계획, 창의능력에는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였고 가정관리능력, 평가, 인간관계능력에는 가족의 월소득이었다.

3.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의 일반변인이나 가족환경변인 그리고 미혼딸의 일반변인보다도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이 현저하게 크게 나타났다. 특히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어머니의 전체 가정관리능력, 인간관계, 평가, 소비능력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정관리 영역별로 볼 때,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해당되는 영역의 어머니의 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들면 미혼딸의 계획능력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보다 어머니의 계획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이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미혼딸이 평상시 그 어머니의 가정관리행동을 지켜봄으로써 의식,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어머니의 인간관계능력은 어머니와 딸의 인간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형성되게 하고 가정관리에 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게 되므로 어머니의 인간관계능력이 딸의 가정관리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은 어머니와 미혼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 교육수준이 큰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교육에 의한 가정관리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은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교육 Program개발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며 아울러 표준화된 가정관리능력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고정명, 주부들의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67-73.
2) 김경신, 부모와 대학생자녀간의 가치전달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23-24.
3) 김복남, 여고생의 가사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37-39.
4) 김부연, 어머니의 자녀교육태도와 물자절약태도와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46.
5) 김옥희, 부산지역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6) 김재은, 한국가족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1974, 125, 250.
7) 김정옥, 한국도시주부의 시간생활구조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논문집 제23권, 1981, 11-24.
8) 박예아, 소비자태도와 소비자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50-52.
9) 신유순, 전북지역주부의 가정관리지식과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86, 65-68.
10) 안영희, 가정학 학습자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 제17집, 1978, 45-22.
11) 오정옥,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2) 유영주, 신 가족관계학, 교문사, 1985, 219.
13) 이기춘, 소비자능력개발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154-159.
14) 이길표 · 이영미, 행위와 대상에 나타난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2호, 1984, 65.
15) 이명숙,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및 자원인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54-55.
16) 이병례, 농촌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관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57-58.
17) 이영숙, 직업을 가진 주부와 그 자녀의 가정관리역할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62-63.
18) 이정숙,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자아실현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19) 이정우, 가정관리성취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연구, 수학사, 1981, 71-115.
20) 이정우, 가족환경적요인이 가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2집, 1982.
21)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78, 618, 3166.
22) 장명욱, 가정관리연구, 장명욱교수 회갑기념논문집, 목련회, 1976.
23) 장명욱, 가정관리학, 교문사, 1989, 48.
24) 조은숙, 모자관계의 심리학적분석, 아세아여성연구 제10집, 1971, 251-271.
25) 채정애, 청소년의 용돈관리와 어머니의 자녀교육태도와의 상관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10.
26) 최윤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27) 한상순,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의 행복도와의 관계, 건국대 연구보고 제2집, 1978, 5-24.
28) 황덕순,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80.
29) 황진자, 가정관리와 제변수와의 상관관계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3, 55.
30) 황혜선, 사회계층적 지위에 따른 가정관리자의 가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72.
31) 酒井ノブ子, 家庭管理能力の測定法, 家庭管理能力の研究, 東京, •書店, 1969.
32) , 共働き家庭の家庭管理の問題點, 가정학잡지 26권 4호, 동경, 1975, 311-315.
33) Altman, S.L. and Grossman, F., Women's career plans and maternal emplymen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 1977, 365-376.
34) G.C.Stouffer, Origanizational Charicteristics of Satisfied and Dissatisfied Homemakers, Unpublished Master thesis, Cornell Univesity, 1964.
35) I.H.Gross and E.W.Crandall, Management for Morden Families, Appletoncentury- Croft Inc. 2nd, N.Y, 1977, 37.
36) J.H.Bailey, Opinions Concerning Home Management of A Selected Group of Homemak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Oklahoma state University, 1965.
37) L.K.Frank, The Philosophy of Home Management, Proceeding From Seventh International Management Congrees, Washington D.C, National Management Council, 1938.
38) Lemkau, J.P., Women in male-dominated professions : Distinguishing personality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8, 1983, 144-165.
39) Nickeil. P and J.M.Dorsey, Management in Family Council, 1938.
40) O'Donnell, D.A. and Anderson, D.G., Factors influencing choice of major and career of capable women,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6 1978, 215-221.
41) P.J.Spurrier, Home Management Satisfaction as

Related to knowleage of Management Principles and Certain Personal Traits of A Selected Group of Homemakers, Unpublished ph.D.dissertation, Texas Women's University, 1973, 124-125.

42) Schulenberg, J.E., Vondracek, F.W. and Crouter, A.C.,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n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984, 129-143.

43) Vogel, S.R., Broverman, I.K., Broverman, D.M., Clarkson, F.W. and Rosenkrantz, P.S., Maternal employment and perceptions of sex-role Stereotypes, Developmental Psychology, 3, 1970, 384-391.

44) Vogel, S.R., Broverman, Sex-role Self-concept and life-style plans of young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1975, 427.